

전 국회의원-전 도의원 맞대결

나주화순

민주 신정훈 정치경험 풍부
민중당 안주용 “호남정치 복원”
두 후보 모두 농민운동 활동

	 신정훈(민주·55)	 안주용(민중·53)
학력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고려대 식량자원학과 졸업
경력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전남도도의회의원 (현)민중당 공동대표
주요 공약	·나주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밸리 구축 ·화순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 국가계획 추진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차별금지법·청년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임금 1.5배 도입

나주·화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와 민중당 안주용 예비후보 간 대결로 좁혀질 전망이다. 농민운동을 해온 점이 두 후보의 공통점이지만, 정치적 경륜과 경험 등은 신 예비후보가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화순과 나주의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추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나주·화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오로지 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현장 정치인”이라며 “나주와 화순, 농촌,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와 민중당 방위비담금 인상지 지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농민수당 실행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전 통합진보당 전남도의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에 발을 내딛었다. 그는 “호남의 정치는 지역차별에 맞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였지만 어느새 당리당략만 남고 호남의 정신은 사라져 버렸다”면서 “당리당략과 개인의 입신양명이 판을 치는 지역정치를 끝내고 나주·화순에서 새로운 진보정치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기준이 되는 진보정치, 호남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역정치 변화를 강조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지역정치 변화는 인물의 변화가 아닌 세력의 변화, 정치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진보정치가 강화돼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기본법”을 즉각 제정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품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1.5배’를 도입하고, ‘농민수당법’을 제정해 농민에게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농민운동가 출신답게 농업관련 주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농지개혁, 여성농민 지위 보장 등을 농업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신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나주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밸리 구축 ▲한전 공대·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 창출 ▲화순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 ▲화순 생물의학 산업 메카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마이크 택시 시범 도시 추진 ▲아동 청소년 창의융합센터 설립 추진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 국가계획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도시재생 ▲농업농촌 활력 회복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민중당 신정훈 예비후보에 맞서 민중당에서는 안주용 예비후보가 본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중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주농민회 사무국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을 지낸 농민운동가 출신이며, 진보정치 운동가이다. 그는 또 나주시 학교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중당

내부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현역 재선의원-도의원 등 3파전

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 이개호 조직력 강점 3선 도전
민생당 김연관 노인 무임승차 공약
무소속 김선우 “민주 심판해 달라”

	 이개호(민주·60)	 김연관(민생·77)
학력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조선대 법학과 졸업
경력	(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전남도도의회의원 (현)민주평화당(담양함평영광장성)위원장
주요 공약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초연급 대상자 전체의 연급 30만원으로 인상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시내, 군내버스) 무임승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예비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생당 김연관, 무소속 김선우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예비후보는 현역 재선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으로 조직력과 인지도를 앞세워 3선을 노리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담양 출신, 민생당 김연관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선우 예비후보는 모두 영광 출신이다.

이 예비후보는 공약을 중앙공약, 지역발전공약으로 나누어 준비했다. 중앙공약의 경우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 권익향상 ▲잘사는 지방, 지역균형발전 부문으로 구성했다. 우선 살맛나는 농어촌을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 농가에 대해 기초생활수준의 생활비를 지급, 농어민의 경영안정 도모에 힘을 쏟기로 했다. 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관련해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우(무·54)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전)문화복지신문 대표
(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지부위원장
·관광경제특별구역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육성
·국립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발전공약의 경우 담양·함평·영광·장성의 100년 도약의 기틀을 만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담양의 경우 대한민국 정 원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 국정원센터 건립 및 명실상부한 국가기관 련 주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농지개혁, 여성농민 지위 보장 등을 농업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장성의 경우 국립심혈관센터 조성 건립과 가능 확대를 추진한다. 장성군 황룡-담양군 월산에 이르는 5096ha 규모의 편백림, 백양사~용흥사의 299ha에 이르는 사찰림을 산림관광 휴양 벨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민생당 김연관 예비후보는 재선 전남도의회의원과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판은 싸움 중이다. ‘정치’란 상대를 인정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망을 담아내고 실현할 인물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저희 선거구는 고령의 농민이 매우 많다. 제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공약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버스(시내 및 군내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제정해 실현하는 것”이라며 “평생을 정당에 몸담아 오는 동안 뼈저리게 느낀 점을, 특이나 힘없는 우리 농민을 위해 마지막 인생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중기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 이룰 것”

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의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안한 정책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육성”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 저성장시대의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학살 참여 공수특전여단 이름 바꿔라”

민생당 김동철 광산갑 예비후보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5·18학살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정예 부대이지만, 3·7·11공수

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공수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부대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총선 승리위해 모든 경선 후보와 ‘원팀’ 구성”

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총선승리를 위해 모든 경선후보와 당 소속 도·시의원으로 구성된 ‘원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 측은 “당 경선에 주철현 후보와 함께 경쟁했던 강화수·김유하·김점우·조계원 예비후보가 선거대책본부 공동선

대위원장으로 참여를 결정하며 ‘원팀’이 완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당과 지지하는 시민들이 문재인정부 성공과 주철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땀과 노력을 기울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화 기자 chkim@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